

# 대한양계협회 소식

## 축협중앙회, 육계 수매비축 개시

- 5백톤, 경영비의 80%선까지 -

지역축협 또는 민간업체에 용자지원

본회는 추석이후 육계가격이 계속 하락해 10월 중순이후 생산비(kg당 986원)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kg당 500원 이하로 출하되고 소비위축으로 계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자, 농수산부와 축협중앙회에 긴급 닭고기 수매비축을 건의해 10월 24일부터 수매에 들어 갔다.

지난 10월 10일 긴급 육계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현황을 파악한 바 일부지역에서 육계출하가격이 kg당 430원 정도로 떨어지는가 하면 농장에서 출하하지 못한 닭이 3kg을 웃돌아 매우 어려운 현실에 봉착해 있음을 감안, 10월 13일 긴급히 수매해 줄 것을 관계요로에 건의하여 10월 24일부터 실시케 된 것이다.

축협중앙회는 양계농가 보호와 가격안정을 도모키 위해 축산진흥기금에서 비축여건을 구비한 지역축협으로 하여금 수매비축케 하고 지역별로 수매량을 배정했다. 지역별로 배정된 물량에 대하여 수매희망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민간업체에 용자지원 하여 수매비축을 할 수도 있도록 했으며, 농가출하가격이 경영비의 80%수준이하 지역을 대상으로 하락폭이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수매키로 하였다. 수매는 경

영비의 80%선이 유지될 경우 수매물량과 관계없이 중단하게 된다.

이번 수매는 1천수 이하의 영세농가를 우선적으로, 정부시책사업 또는 정부지원단체 생산분을 우선 수매하고 도계육 기준 500톤(42만 8천수분)이며, 생체중 1.8~2kg의 닭고기를 10월 24일부터 한달간 전국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

각 지역별 배정물량은 경기도(서울, 인천포함)가 22만 9천kg(도체체중기준), 강원이 3만 4천kg, 충북 2만 1천kg, 충남 5만 7천kg, 전북 1만 8천kg, 전남(제주포함) 2만 8천kg, 경북(대구포함) 6만kg, 경남(부산포함) 5만 3천kg 등이다.

한편 본회에서는 △수매시 중량제한을 철폐할 것 △수매조작비는 판매후 정산할 것 △지역별 수매물량 재조정 △값으로 경영비의 80%이하로 가격폭락 사태가 발생하면 상황에 대처해 즉각 수매비축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줄것 등을 축협중앙회에 요청한 바 있다.

영세농가보호를 위해 취해진 이번 조치로 육계가격은 10월말 현재 kg당 700~800원 선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제 3 차 이사회 개최 - 10 월 12 일 본회 회의실에서 -



△제 3 차 이사회가 열리고 있다.

1983년도 제 3 차 이사회가 지난 10 월 12 일 (수) 오후 본회 지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성원보고와 전회의록낭독에 이어 업무현황보고, 부의안건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황 인옥전무는 업무현황보고에서 주요행사참가, 회의 및 행사개최와 간행물발간, 지도조사사업, 방역대책사업, 검정사업, 채란 및 육계분과사업 등 각종사업전개 내용과 행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부의된 안건으로서 △신가입 회원 및 제명대상회원 승인 △충청남도지부 승인 및 홍성분회·천안분회 폐쇄 △수지예산 추가경정 △지부(분회)규정 폐기 및 제정 △아세아 태평양 축산학회 지원 건 △기타사항 등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4년 4월 16일에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지부 또는 분회 규정이 82년 8월 농수산부의 법인 분사무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시와 분사무소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시정지시에 합당치 못해 새로운 지부 및 분회규정을 제정했다.

기타사항으로는 최근 육계가격이 폭락되어 많은 양육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비추어 부화장, 육계농장에 30% 감축을 종용하는 호소문 발송과 육계수매비축을 농수산부에 의뢰해 빠른 시간내에 육계를 수매 비축하여 육계농가에 도움을 줄 것을 결의했다.

## KBS-TV 계란에 대해 집중방영

- 11 월 1 일, 본회협조로 -

한국방송공사는 11월 1일 오전 9시10분부터 10시까지 50분간 KBS 제 2 TV 방송망을 통해 전국에 「계란」에 대한 방송을 했다.

계란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밝힌 이날 방송은 본회의 협조를 얻어 영양학자, 농수산부관계자, 한의사, 주부 등이 참석하고 김포 대야성농장(대표 기세중)에서 집중취재와 농어촌개발공사 축산식품연구실의 실험을 통해 전국의 주부를 대상으로 계란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식품으로의 우수성, 계란의 요리방법, 계란에 대한 상식, 단백질식품과의 가격비교와 영양분비교 등 계란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다.

본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자주 가져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일반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해 소비촉진에 부응할 예정이다.

## 닭 경제능력검정소 기공식

- 10 월 19 일,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에서 -

본회 닭 경제능력검정소 기공식이 지난 10월 19일(수) 오전 12시 경기도 안성군 서운면 중리 산 72번지 검정소 부지에서 농수산부 축산과장, 도축정과장, 지역유지, 본회 회장단, 검정위원, 내외귀빈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닭 경제능력검정소 기공식 광경

신축되는 닭경제능력검정소는 11,410평의 대지에 3억 3천 3백만원(정부보조 1억 9천 3백만원, 협회 1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검정제사 5동(680평), 계사창고 1동(20평) 외에 사무실, 실험실, 부화실 등 780평의 시설물을 건축하게 되며, 부대시설로는 케이지, 환풍시설, 부화기, 발전기, 급이·급수시설, 전기수도시설 등이 있다

본공사의 공사기간은 10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이다.

이번에 새로짓는 검정소는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시설을 설비하게 되는데,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건설하며 시공은 <주>삼대건설(대표 남정규)에서 맡고 있다.

### 축산회관 농촌일손돕기

####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일대 벼베기 작업-

본회와 대한양돈협회(회장 전동용), 한국낙농비육협회(회장 황영구), 종축개량협회 등 축산회관 4개 단체는 지난 10월 15일 농촌일손돕기의 일환책으로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하리일대 2천여평의 논에서 벼베기 작업을 가졌다.

이날 동원된 직원들은 오랫동안 도시의 매년

에서 해방되어 황금들녘의 풍년을 만끽했다.

한편 벼베기를 마치고 오후에는 4개단체 축구대회를 개최해 축구를 통한 건강한 교류로 하루를 만끽했다. 축구대회에서는 양돈협회가 우승, 종축개량협회가 준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농촌일손돕기 벼베기 작업

### 10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환절기 산란계관리 세미나도 가져-

올들어 열번째 채란분과위원회가 10월 17일 축산회관 지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 시작에 앞서 가진 「환절기의 산란계 관리」에 관한 세미나에서 한일농원의 김영상차장은 '환절기시에는 호흡기 질병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NH<sub>3</sub>의 영향 및 조절의 필요성, 점등관리, 강제환우계획 등에 관해 자료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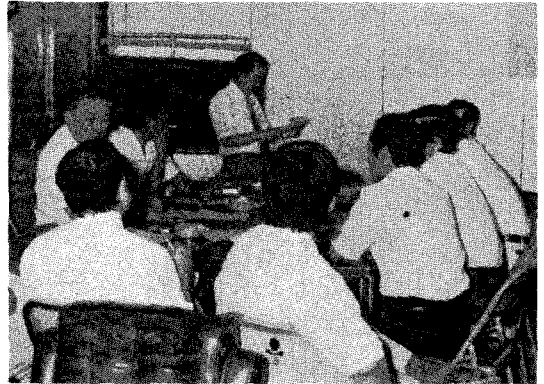
이어 본회 황인숙전무는 한달동안의 협회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부화인대회 간담회 개최, 브로일러제열화 세미나, 닭검정소 설치, 긴급육계생산자회의 결과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내년도 계란생산은 15% 증산이 예상되는데 반하여 소비는 5%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여 10% 정도의 체화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본회의에서는 산란계초생추출하현황을 간략

히 검토한 후, 사료가격 10% 인상시의 난가는 3.8원의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채란업계 당면문제로서 서울지역의 유통상 문제점은 타지역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생산자 전체가 반성하여 연합회 개최, 신속한 정보망 구축 등 타개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으며, 상인들의 가격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판장을 설치,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의 하기도 했다.

또한 출혈을 해서라도 현실가격고시제가 이루어져야 하고, 시세엽서 발행시 상인들의 농간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재차 제시되었다.

한편 이날 다루어진 의견들은 11월 회의때 확정짓기로 했다.



△닭 경제능력검정 위원회

반복×50수)에 대한 제17회 산란계 검정완료 성적검토가 있었다.

제17회 산란계 검정성적은 완전히 집계된 후 12월호 본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닭경제능력검정소 신축공사에 대하여도 의견을 교환, 성공적으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10월 정기 채란분과 위원회

### 검정위원회 개최

#### - 17회 산란계 검정 성적 검토 -

금년도 제 4 차 검정위원회(위원장: 오 봉국)가 10월 27일 오후 2시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17회 산란계 중간성적 검토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82년 5월 20일부터 개시돼 83년 10월 1일까지 500일 검정이 끝난 900수(6구×3

### 10월 육계생산자회의 개최

#### - 닭고기 수매비축 건의 받아들여져 -

올들어 육계값이 500원 이하로 떨어지는 커다란 불황에 봉착하여 계속 하락세에 있는 육계값의 부양책과 계속수매대책 등을 협의코자 긴급 육계생산자 회의가 10월 10일 오후 2시 축산회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우선 정보교환 및 전망검토에서 닭값은 계속 하락세에 있고, 초생추가격은 50~200원으로 지역별, 계통별 차이가 심하고 입주는 주춤한 것 같으나 일부 부화장의 자체 입식을 감안할 때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전망은 암담하여 이대로 1개월만 지속되면 도산하는 농가가 속출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런 불황을 극복하는데 있어 불경기의 장기

화 요소를 지니고 있는 닭고기 수매비축에 대한 토의에서 의견이 분분하여 일단 추매전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기타사항으로는 기업축산의 적정기준 설정에 대한 토의로서 채란제는 3만수 이상, 육계는 10만수 이상을 적정기준으로 설정했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닭고기 수매비축전에 대해 농수산부 및 축협중앙회에 긴급 진의한 바 10월 24일부터 수매하겠다는 수매비축 계획을 시달받아 이를 검토코자 10월 25일 14시 축산회관회의실에서 육계 생산자 월례회가 개최되었다.

개회에 이어 업계 현황검토에서 전국적으로 닭 체화 수수는 약 100만수로 추정되었다. 계속하여 축협중앙회의 수매비축계획 검토가 있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매기간은 83년 10월 24일부터 1개월간 계속될 것이고 수매물량은 도계육 500M/T(428천수), 마리당 1.8~2.0kg 기준이며, 시세는 현시세로 하되 669원(경영비의 80%) 이하에서만 수매하겠다는 내용이다. 내용검토후 전국 육계생산자 대표들은 수매체중 제한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조절하여 2.5kg 이상의 체화물량도 수매할 수 있도록 해 줄 것과 수매단계의 철폐, 도계비, 포장비, 냉동비, 보관비 등 제비용은 영세 육계생산자들



△긴급 육계분과위원회에는, 많은 양축가가 참석했다.

고려하여 사후 정산처리해 줄 것을 요망하므로 본회에서는 정식 공문으로 진의키로 했다.

끝으로 가정의례 준수사항을 시달렸으며 앞으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같이 과감한 입추감축을 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 중부지역 부화인대회 개최

- 11월 9일, 오후 2시 본회에서 -

본회는 중부지역 부화인대회를 오는 11월 9일(수) 오후 2시 본회지하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열리는 중부지역 부화인대회는 지난 9월 28일 제 2차 부화인대회에서 부화인들이 각 지역별로 자주 모임을 갖고 공통관심사를 의논하고 서로 협조하는 가운데 당연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자는 의결이 있는 후 첫번째 열리는 모임으로 중부지역의 많은 부화인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리는 중부지역 부화인대회에서는 양계기반조사 결과보고와 부화업계에 당면한 문제 토의, 부화분과위원회 활성화 방안, 사료값 인상에 따른 생산의 절감방안, 양계산업 안정화 방안 기타사항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 감별사 해외파견 요청

- 도미니카공화국 -

중미에 위치하고 있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감별사 파견 요청이 들어왔다.

대상은 고등감별사(해외파견시험 합격자)인데 부부감별사의 경우 어렵지 않게 현지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84년 2월 출국예정이며, 자세한 것은 본회 사무국 (752-3571~2)으로 문의바란다.